

아파도 실 수 없는 어린이집 선생님

광주 보육교사 7000여명에 대체교사는 58명 뿐

2~3주전 신청해야 혜택... 긴급상황선 속수무책

#1. 광주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최근 수두에 감염됐지만 대체교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며 대체교사를 보낼 줄 것을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지역의 모든 대체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 파견돼 있어 계속 출근해야 했다.

#2. 광주시 북구의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다. 주말에 사고를 당해 월요일부터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모든 대체교사의 파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 교사는 상처를 싸매며 근무를 해야 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가

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응급 상황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보육교사는 7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대신해 줄 대체교사는 58명에 불과해 대체교사 미파견 사례가 하루 평균 2~3건에 달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 9억 9300만원(광주시 부담 40%)과 광주시 자체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대체교사 58명을 운용하고 있고, 광주지역 1100곳의 어린이집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파견하고 있다.

애초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이나 연가를 갈 경우에 대비해 운영된

탓에 예산과 전체 인원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이에 따라 대체교사는 2~3주 전에 사전 신청을 한 어린이집을 우선해 파견했는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보육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면서 대체교사의 ‘긴급 파견’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대체교사들을 관리·파견하고 있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일선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과 연가를 위한 ‘상시 파견’의 경우에도 신청자가 많아 2~3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교사의 부상 등의 상황에 적용되는 ‘긴급 파견’도 인력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체교사 수가 적어 모든 대체교사가 매일 ‘상시 파견’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 파견’에 투입될 인력이 전혀 남아 있지 않

은 상황이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대체교사가 부족해 일선 어린이집 교사가 눈병이나 독감에 걸려 아이들을 돌볼 수 없거나 자녀가 입원해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가 상을 당했을 때도 파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대체교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풀 가동’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 돌보미 사업처럼 비상근 대체교사 인력 풀을 만들어 긴급 상황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1 해질 19:37
 달출몰 13:22 달몰 19:37



지역	날씨	기온
서울	흐림	23/30
경기	흐림	24/31
충청	흐림	25/31
전북	흐림	25/30
전남	흐림	26/29
경남	흐림	24/30
제주	흐림	22/27

시간	기온	강수량
00:32	07:38	0.0
13:05	20:25	0.0
08:20	02:04	0.0
21:14	15:08	0.0

광주 온 김상곤 부총리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의견 충분히 수렴”

DJ센터서 학부모 경청투어

중3·고1 학부모 15명 참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현재 대학입시는 암기 위주의 교육과 출세우위 평가로 인해 21세기를 선도해야 할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엔 한계가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향 관련 2차 학부모 경청투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학입시는 여러 교육 의제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면서 “그러나 현재 대학입시는 복잡한 입시체제와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한경쟁 속에 많은 폐해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며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다. 2015 교육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과도한 점수경쟁을 완화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등 고교 교육 내실화를 이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능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허심탄회 토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향 관련 2차 학부모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청 투어엔 광주 광산중·동명중·광주일고·정광고·화순고 등 광주·전남·대전·세종·천안 등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15명이 참여해 교육 전반과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향에 대해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변별력 약화로 사실상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내일부터 병문안 제한

감염병 예방...광주·전남 최초

스크린 도어 설치·출입증 도입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중 최초로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문안을 제한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내달 1일부터 정해진 면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동 병문안객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은 이를 위해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으며 ‘출입증’도 도입했다. 면회시간은 평일 오후 6시~8시, 주말

과 공휴일엔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로 제한한다.

병원은 내달 1일부터 모든 병동에서는 출입통제를 위한 스크린 도어를 가동한다. 병동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의 바코드를 통해 문 옆 리더기에 인식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당시 무분별한 방문 면회가 감염병 확산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

경찰청 인사도 호남 약진

이기창 치안정감 이어 허경렬 치안감 승진

광주경찰청장에 배용주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광주 출신 배용주(54·경찰대 2기·사진) 경찰청 보안국장이 임명됐다. 특히 이번 치안감 인사에서 호남 출신으로 허경렬(57·간부후보 35기·담양) 서울청 보안부장이 승진해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배치됐다.

호남지역 경찰계 안팎에서는 이번 치안감 인사를 지난 26일 치안정감 인사에서 장흥 출신 이기창(경찰대 2기) 광주경찰청장이 승진한 데 이어 겹경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8일 광주경찰청장에 배용주 국장을 전보하는 한편 경찰청 수사국장에 허경렬 서울청 보안부장을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감으로 4명을 승진하고, 5명을 전보하는 등 치안감 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배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광주 정광고와 경찰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2006년 총경 승진과 함께 보성서장으로 취임한 이후 광주 광산서장 등



을 거쳐 지난 2014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어 전북청 차장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치안감 승진과 함께 경찰청 보안국장을 역임했다. 신임 광주경찰청장 취임식은 31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치안감 인사에서는 치안감 승진자 4명 중 호남출신으로 담양이 고향인 허경렬 서울청 보안부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민갑룡(52·경찰대 4기·영암) 서울청 차장은 경찰조직의 ‘브레인 기능’을 맡고 있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는 호남출신의 약진이라고 보다는 편중된 인사를 바로잡는 신호탄으로 봐야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랜 기간 소외받았던 호남출신 경찰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 이자만 납부 OK! | 청약 통장 NO! |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